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8.1(금) ~ 2025.8.7(목)

제공일시 2025 8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8.1(금) ~ 2025.8.7(목)

글로벌 정책

1. 호주, 자국 희토류기업 채산성 위해 가격하한제 검토...시장 반색

- 매들린 킹 호주 자원부 장관이 4일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가격 하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킹 장관은 성명에서 "가격의 확실성이 투자자와 기업의 시장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기에, 적절한 가격 하한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함

- 업계는 호주의 희토류 채굴 업체에 가격 하한선을 보장해 주면, 중국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기업이 희토류 개발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뉴스1 2025.8.5\)](#)

2. 유럽 싱크탱크 "EU, 항공기도 탄소배출 징수해야...세수 10배↑"

- 유럽연합(EU)이 내년으로 예정된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 시 항공 부문에도 배출 규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유럽 환경 부문 싱크탱크인 '카본 마켓 워치'는 연구 결과, ETS에 항공 부문을 완전히 편입하면 ETS 수입이 최대 1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장거리 항공편, 개인 제트기에 더해 이산화탄소 외 다른 지구 온난화 요인에 대해서도 징수하는 것을 가정해 추산한 것으로, 액수로는 1조1000억유로(약 1천763조원)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025.8.4\)](#)

3. ESRS 간소화 초안 공개...공시 항목 57% 삭제, 이중 중대성도 완화

-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31일(현지시각)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간소화 초안을 공개했음. EFRAG은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SRB) 승인 하에 12개 기준에 대한 간소화 작업을 마치고, 9월 29일까지 2개월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음

- EFRAG은 이번 간소화 초안에서 기준 전체 길이는 55% 축소됐고, 공시 요구사항의 68%, 필수 데이터포인트의 57%가 삭제됐음. 기후 기준의 데이터포인트는 53%, 환경 기준은 67% 줄었으며, 사회 기준에서는 자체 인력 항목이 절반 이상, 기타 사회 기준은 약 3분의 2가 감축됐음

[\(임팩트온 2025.8.1\)](#)

국내 정책

1. '플라스틱 퇴출' 로드맵 재가동...정부, 국정과제 채택

-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예정임
- 환경부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탈플라스틱 로드맵 공약 관련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됨
- 로드맵에는 일회용품 규제 추진 방향, 전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임

[\(매일경제 2025.8.6\)](#)

2.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과제 선정...내달 6일까지 사업자 모집

- 환경부가 재활용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실증 과제 3건을 선정했음. 내달 6일까지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임.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함
- 실증 과제로는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관련 재활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관련 재활용, 인쇄회로기판에서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이 선정됐음

[\(뉴시스 2025.8.6\)](#)

3. 철강 업계, 50% 관세 폭탄 초토화 위기...국회 'K스틸법' 발의

-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은 4일 한국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을 발의했음. 미국 철강 관세가 50%로 유지되면서 이 법안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K스틸법은 ▲대통령 산하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 철강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철강 핵심 전략 기술 선정 ▲세제 및 재정 지원 ▲공동행위 금지 규정 적용 금지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함

[\(마이데일리 2025.8.4\)](#)

글로벌 기업

1. BP, 브라질서 25년래 최대 유전 발견...업스트림 중심 전략 본격화

- 영국 에너지기업 BP가 브라질 산토스분지 심해 유역에서 최근 25년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석유·가스 매장지를 발견했음. BP는 현재 해당 유전의 상업성 검증에 착수했으며, 탐사 지점은 수심 2400m의 심해층임
- 이는 BP가 저탄소 전략에서 한발 물러난 뒤, 전통 에너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진 조치임

[\(임팩트온 2025.8.5\)](#)

2. 인도 재벌 아다니, 中BYD와 손잡나... "배터리 협력 추진"

- 인도 최대 태양광 발전 기업인 아다니 그룹이 재생에너지 사업 확장을 위해 중국 비야디(BYD)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아다니 그룹의 가우탐 아다니 회장이 비야디와의 배터리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비야디 경영진과의 논의를 직접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아다니는 고정형 에너지저장장치에 사용할 리튬이온전지의 대량 생산 계획하고 있는데, 비야디가 가장 진보적이고 저렴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아주경제 2025.8.4\)](#)

3. "다시 돌아가야 하나" 발 동동...동남아 간 中 기업들 '비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격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 관세가 높아지면서, 그간 이들 공급망 전략의 핵심이던 '차이나 플러스 원'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
- 대중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대거 이전했지만, 이들 기업이 중국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됨. 전문가들은 대중 관세와 동남아 국가 관세 간 격차가 10%포인트 안팎이라면 물류 효율, 융통성, 비용 측면에서 기존 중국 생산망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내고 있음

[\(한국경제 2025.8.5\)](#)

4. 빈패스트, 인도 첫 전기차 공장 준공...연간 5만 대 생산 체제 구축

- 베트남 전기차 제조사 빈패스트(VinFast)가 인도에서 첫 번째 자동차 공장을 공식 준공하며, 현지 전기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함. 이번 공장은 연간 최대 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 이는 인도 내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임. 빈패스트는 인도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움직임에 맞춰 설비를 구축했으며,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춤으로써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임

[\(파이낸스 투데이 2025.8.5\)](#)

국내 기업

1. LS일렉트릭, 태양광발전소 매매·VPP 참여 플랫폼 '햇빛길중개' 오픈

- LS일렉트릭이 태양광 발전소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수익성을 검증해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가상발전소(VPP)에도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햇빛길중개'를 출시했음. 회사는 개인 간 태양광 발전소 거래시장에서 과거 발전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 수익을 분석해 합리적이고도 투명한 거래를 돕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음
- 태양광 사업자는 누구든지 햇빛길중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상담을 거쳐 VPP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음

[\(일렉트릭파워 2025.8.6\)](#)

2. 상장사 ESG 정보공시 짊짊 증가...위원회 회의도 1년에 고작 4번

- ESG행복경제연구소는 5일 지난달 말까지 공시된 국내 시가총액 기준 상위 25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했음. 분석 결과, ESG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ESG 위원회 회의 역시 연평균 4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구소는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국내 의무공시 제도가 부재한 데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검증에 비용과 인력 부담이 뒤따르는 등 복합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함

[\(연합뉴스 2025.8.5\)](#)

3. 롯데에너지머티, 스페인 공장 착공...적자 속 투자 진행

- 롯데그룹 배터리 동박 제조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유럽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페인 동박 공장 신설 작업에 착수했음.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적자 경영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 것임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스페인에 5600억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 능력 3만톤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이데일리 2025.8.1\)](#)

4. 대한전선, 1816억 안마해상풍력 해저케이블 턴키 수주

- 대한전선이 4일 국내 최대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안마해상풍력 개발 사업의 내부망 해저케이블 공급 턴키(일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 계약금액은 약 1816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2028년 말까지임. 이번 수주를 통해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설계부터 생산, 운송, 시공까지 전 공정을 수행함

[\(매일경제 2025.8.4\)](#)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8.1(금) ~ 2025.8.7(목)

제공일시 2025 8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독일, 해상풍력 핵심부품 '영구자석' 중국 의존 낮춘다...2035년까지 50% 대체 조달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가 6일(현지시각) '영구자석 회복력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해상풍력 생산에 필요한 영구자석의 30%, 2035년까지 50%를 호주·일본 등 대체 공급국에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이번 로드맵에는 유럽풍력협회, 독일풍력산업협회, 독일기계장비산업협회(VDMA)가 공동 서명했음. 독일 정부는 장기공급계약·투자보증 등 정책 수단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 전환을 지원할 예정임
- 현재 전 세계 영구자석 공급의 약 90%가 중국에서 제조되며, 핵심 원료인 희토류 또한 중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영구자석은 해상풍력 터빈의 전력 출력 최적화와 유지보수 절감을 위한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정밀기계·국방 산업 등 다양한 첨단 제조 분야에도 활용됨
- 로드맵에 따라, 2026년 말까지 OEM과 공급계약 체결, 2028년 말 첫 출하, 2029년 말 해당 부품을 탑재한 풍력터빈의 가동 등의 세부 일정이 진행될 예정임
- 이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자석 생산 공정 자체의 탈중국 전환이 장기 과제로 추진되며, 독일은 특정 제3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체계적으로 줄이려는 방침임
- 독일 정부는 해상풍력 설비를 2030년까지 30GW로 확대해 현 수준 대비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을 병행할 계획임
- 다만, 올해 독일의 해상풍력 발전량은 전력수요의 5%에 그쳤고, 2025년 1분기 전체 풍력 발전 비중은 전년 34%에서 24%로 하락해 목표 달성에 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임팩트온 2025.8.6\)](#)